

<2017년 12월 10일 주일말씀>

<하나님의 법>은 '사랑 법'이다 생명을 살리려면, 이같이 하여라

본 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

◎ <12월 주일말씀, 수요일말씀, 금요일말씀, 새벽말씀>은

특히 더 신경 써서 '성령'으로 잘 전하여

듣는 자들이 <말씀>으로 마음을 일으키고 온전히 행하도록 해 줘야 된다.

이것이 '단상에 서는 설교자들의 책임'이다.

선생이 금식 중에 깊이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고,

조은이 그 많은 일 다 감당하면서 몸져누우면서까지 귀히 정리한 말씀이다.

마지막으로 록화 목사, 홍빛 목사까지 한 번 더 수고해서 내보내는 말씀이다.

이제 나머지는 '설교자'에게 달려 있다.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지금은 <110일 특별기도 기간>입니다.

선생은 현재까지 두 차례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.

선생이 해야 하니 했습니다.

밖에서 뛰고 달리는 지도자들은 무리하게 금식하면 안 됩니다.

잘 먹으면서 뛰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.

선생은 금식 중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더 많은 말씀들을 썼고,
섭리사 각 부서마다 사연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내 주고,
사연이 담긴 시도 써서 보내 주면서 계속 소식을 전했습니다.

◎ 오늘은 두 번째 금식을 할 때

<금식 7일째 되는 날 쓴 말씀>을 전해 주겠습니다.

내용은 “**섭리사 모두는 생명을 이렇게 다스려라.**” 라는 말씀입니다.

<전초>

- ◆ 하나님과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기 전에,
먼저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.

한 번 전해 주고 바로 오늘 말씀을 해 줄 테니,
귀를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.

<자막으로 보여 주면서,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을 전한다.>

“<둘>이면 언젠가는 갈리게 된다.

삼위와 하나 되어 묶여 있어야, 언제든 갈리지 않는다.

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묶이기다.

<둘>이어도 ‘묶인 것’ 은

<하나>가 가면 <다른 하나>도 같이 따라간다.

묶였는지, 안 묶였는지는 ‘움직여 보면’ 안다.

묶였다면 따라가고, 안 묶였다면 갈린다.”

◆ <삼위와 주와 묶인 자>라면,

삼위와 주가 이리로 저리로 움직여도 ‘묶여 있으니’
절대 갈리지 않고 같이 따라갑니다.

<삼위와 주와 묶이지 않은 자>라면,

삼위와 주가 이리로 저리로 움직일 때 ‘묶여 있지 않으니’
따라가지 않고 갈리게 됩니다.

이를 기억하고, 2017년 삼위와 주와 묶여서

<2018년 희망의 해>를 희망과 사랑으로 맞이하기 바랍니다.

<말씀 시작> ‘◆’ 표시는 보다 중요한 부분

◎ 이제,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.

처음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니, 잘 듣기 바랍니다.

◆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세상에 <하나님이 정한 진리>가 있는지 보아라.

보고 듣고 잘 판단하여, 오직 <참진리>를 따라서 하여라.

<진리>와 달리 하면, 애태우며 고생만 하고 끝난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세상에 <하나님이 정한 진리>가 있습니까?
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

<성경>이 아니어도 <진리>가 ‘세상을 운영’ 합니다.

그 <진리>는 ‘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진리’ 입니다.

<진리>가 세상을 운영하니,

<하나님의 진리>는 세상에 꼭 차 있습니다.

잘 보고 듣고 판단하여,

오직 <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참진리>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.

<진리>와 달리 하면, 애태우고 고생만 하고 끝납니다.

- ◆ <성경>은 옛 선조들과 그 시대 사람들을 인도할 때,
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말씀입니다.

<그 말씀>만 가지고서는 ‘이 시대 하나님의 진리와 법’을
다 실천하지 못합니다.

지금 이 세상은 ‘발달된 세상’이라 옛날과는 딴 세상입니다.

고로 <그 옛 말씀>만 반복해서는 목적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.

- ◆ 고로 하나님은 ‘이 시대를 사는 자들’에게
또 ‘이 시대’에 맞게 말씀하십니다.

시대가 발달됨에 따라서 <세상 법>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,

육과 영의 구원에 대해서는 <이 시대 보낸 자>를 통해 말씀하십니다.

<시대 법>을 따르며 <이 시대 새 말씀>을 듣고 행해야

<이 시대>에 맞게 실천하며 목적을 이룹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계속해서 하는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.

- ◆ 예수님이 오시고 <신약의 때>가 되니,
하나님은 더 이상 <구약 법>으로 그 시대를 운영하지 않으셨습니다.

새롭게 <신약 법>을 주시며, 그 법으로 시대를 운영하셨습니다.

- ◆ 이제 <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약의 때>가 와서 진행 중입니다.
그중에서도 지금은 <창조 목적을 이룬 휴거의 때>입니다.

하나님은 이 시대를 운영하실 때

<구약 법>으로도 안 하시고 <신약 법>으로 안 하십니다.

<이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>를 펴야 하니,

<이 시대에 해당되는 법과 진리>를 주고 행하십니다.

- ◆ 하나님은 <한 개인>을 인도하더라도
<그 사람>에게 맞춰서 합당하게 쓰시고
<그때그때> 합당하게 인도하며 행하십니다.

- ◆ <각 사람>은 마치
<글자>마다 ‘획’ 이 다르고 ‘모양’ 이 다르듯 다릅니다.

한 번 보세요.

<사슴>과 <토끼>라는 글자는 ‘획’ 도 다르고 ‘모양’ 도 다르지요?

이와 같이 <각 사람>도 다 다릅니다.

고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다 똑같이 하지 않으시고,

<그 사람>에 맞게 ‘그때그때’ 합당하게 인도하십니다.

고로 아무에게나 <성경의 법>을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.

그러다가는 오히려 생명들을 죽이게 됩니다.

<구약 법>은 ‘구약 중심’ 이고,

<신약 법>은 ‘신약 중심’ 입니다.

<성약>에서는 ‘구약과 신약의 법’ 을 중심하면 안 됩니다.

구약 법, 신약 법 중의 <기본법>만 행하고,
우리는 <이 시대 중심의 법>을 지켜야 됩니다.

- ◆ 사람도 저마다 대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.

<타인 대하는 법>이 있고, <형제 대하는 법>이 있고,
<자기 애인 대하는 법>이 있습니다.

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마다 대하는 법이 완전히 다릅니다.

고로 <타인 대하는 법>을 ‘형제’에게 쓰면 안 되고,
<형제 대하는 법>을 ‘자기 애인’에게 쓰면 안 됩니다.

그러면 완전히 실패합니다.

- ◆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.

하나님은 <구약의 종 법>을 ‘신약의 자녀들’에게 안 쓰시고,
<신약의 자녀 법>을 ‘성약 신부들’에게 안 쓰십니다.

<성약의 신부들>에게는 ‘애인, 신부 법’을 쓰십니다.

이 시대는 <신부들>이니 ‘사랑의 법’을 쓰십니다.

이것을 알고, 모두 ‘옛 법’을 벗어나야 됩니다.

- ◆ 단, <구약과 신약의 기본적인 법>은 누구나 행해야 됩니다.

-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.
-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.
-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.
- 안식일을 지켜라.

- 부모를 공경해라.
- 살인하지 말아라.
- 간음하지 말아라.
- 도둑질하지 말아라.
-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.
-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.

이 법은 ‘어느 시대 누구나 행해야 할 기본법’입니다.
구약 때나, 신약 때나, 성약 때나 누구든지 지켜야 됩니다.

- ◆ 유월절을 지켜라. - 이 법은 <구약>에만 해당됩니다.
양과 소를 잡고 제사 드리는 것도 - <구약>에만 해당됩니다.
조상들의 율례와 예식도 - 역시 <구약>에만 해당됩니다.

- ◆ <한 달>을 ‘한 살’로 해서 나이를 따지는 계산법도 -
<구약>에만 해당됩니다.

그때는 아직 ‘달력’이 나오지 않았던 때라서
<그 시대 나이 계산법>으로 계산하니,
성경을 보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고
므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.

지금 이 시대는 나이를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.
<1년 365일>을 가지고 ‘한 살’로 계산합니다.

- ◆ 또 <구약 때>는 ‘천동설 시대’이니,
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‘태양이 멈췄다.’ 했습니다.

그때는 <시대적인 배경>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.

시대가 지나서 발달되니, ‘지동설 시대’가 왔습니다.

이제는 ‘태양이 멈췄다’ 함은
그만큼 ‘하나님이 함께하시어 시간의 표적이 일어났다.’ 라고
풀어야 이치에 맞습니다.

그런데 <신약인들>은 무조건 ‘문자’ 대로만 성경을 보면서,
<시대 법>을 모르고 무지하게 따지고 계산합니다.

그러니 ‘무지’를 못 벗어납니다.

- ◆ <성약> 때는 ‘기존의 성경 법’ 뿐 아니라,
<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법>을 다 따르며 시대 역사를 펴니다.

고로 <성약> 때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<성경에 없는 법>,
곧 <이 시대에 해당되는 진리>를 엄청나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며
<이 시대의 목적과 뜻>을 이루십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◎ 이제 하나님이 시대마다, 개인마다
그때에 맞게 <그에 해당되는 말씀>을 주시고
그 시대와 개인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알았지요?

이제,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.

- ◆ 성약 섭리사 안에서도 ‘개인마다 적용되는 법’이 다릅니다.

첫째, <성경의 기본법>을 주어 모두 지키게 하시고,
둘째, <이 시대에 해당되는 법>을 주어 각자 지키게 하시고,
셋째, <개인에게 해당되는 법>을 주어 인도하십니다.

- ◆ 세상도 <직업>마다, <직위>마다 ‘다른 법’ 이 적용됩니다.

<군인>에게는 ‘군인 법’ 이 적용되고,
<공무원>에게는 ‘공무원 법’ 이 적용되고,
<경제인>에게는 ‘경제인 법’ 이 적용되고,
<예술인>에게는 ‘예술인 법’ 이 적용됩니다.

단, <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법>은 같습니다.

- ◆ <장애인 법>도 따로 있습니다.

이 법은 ‘장애인들’ 에게 특별히 줍니다.
그러지 않으면, 장애인들이 제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.

섭리사에서도 그러합니다. <신앙의 장애인>이 있습니다.
그들에게는 <특별법>을 줘서 다스려야, 섭리사에서 살아남게 됩니다.

- ◆ 또 <죄인들의 법>과 <의인들의 법>이 다릅니다.

<죄인>을 ‘의인’ 다루듯 하면, 절대 안 됩니다.
그러면 회복하지 못하고, 죄인으로 끝납니다.

그래서 <죄인>에게는 ‘회개와 용서의 법’ 이 있습니다.
그래야 삽니다.

- ◆ <아픈 자의 법>이 따로 있습니다.

아프면, 학교도 회사도 못 나갑니다.

아플 때 학교나 회사에 못 나가면, 그것은 <법>에 안 걸립니다.
어느 정도까지 ‘치료할 기간’ 을 줍니다.

만일 **건강한데** 학교나 회사에 무단으로 안 나간다면,
이것은 <법>에 걸립니다.

- ◆ <시대 법> 안에서도 ‘**신앙이 병든 자의 법**’ 이 있습니다.
이 법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‘**나을 때**’ 까지 적용해야 됩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개인>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,
<그때그때>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.

이는 마치 <글자>마다 ‘**획과 모양**’ 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.

가령 <치타>라는 글자를 ‘그 획과 모양’ 으로 쓰지 않으면,
그 글자는 ‘치타’ 로 기능하지 못하고 죽어 버립니다.

이와 같이 <개인>도 사람에 따라 ‘**법**’ 을 잘못 쓰면,
생명을 죽이게 됩니다.

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을 오래했는지, 짧게 했는지
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.

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고
<그에 해당되는 법>을 적용해야 됩니다.

이는 ‘**환자에 따른 의사의 약 처방법**’ 과 같습니다.
모든 환자에게 ‘**똑같은 처방**’ 을 내리면, 부작용이 일어납니다.
<각 환자에 맞는 처방>을 내려야 됩니다.

<신앙의 법>도 ‘**각 사람에 맞는 법**’ 을 적용해야 생명을 살립니다.

- ◆ <법>은 사람을 ‘죽이기’ 도 하고 ‘살리기’ 도 합니다.

<말씀의 법>도 그러합니다. 고로 잘 써야 됩니다.

먼저 ‘개인의 위치’ 를 보고,
그다음에 ‘개인의 상태’ 를 보고,
그 사람이 ‘얼마나 성장했는지’ 를 보고,
<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의 법>을 써야 됩니다.

- ◆ 만일 ‘신앙의 병’ 이 들었으면,
이때는 반드시 <치료법>을 써야 됩니다.

치료가 다 됐으면, 그때는 ‘약’ 이 필요 없습니다.
그때는 <영양가 있는 음식>이 ‘약’ 입니다.

고로 이때는 <일을 주는 말씀과 법>을 주어,
보람을 느끼게 해 줘야 됩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신앙이 병든 자>에게는 ‘치료법’ 입니다.
<병든 신앙이 나은 자>에게는 ‘행하는 법’ 입니다.

성장한 만큼 ‘거기에 해당되는 법’ 을 주며 대해야 됩니다.
이것이 ‘생명을 살리는 법’ 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하나님의 법>은 사실 ‘딱 하나’ 입니다.
바로 ‘사랑의 법’ 입니다. ‘조건 없는 사랑의 법’ 입니다.
고로 하나님은 끝까지 ‘사랑의 법’ 으로 대하십니다.
- ◆ 하나님은 끝까지 <사랑 법>으로 대하시는데
그 사랑을 받고도 ‘다른 길’ 로 가면,
그러다 스스로 ‘함정’ 에 빠지고 ‘고통’ 을 당하게 됩니다.

곧 <자기 무지>로 스스로 ‘함정에 빠지는 법’에 걸린 것입니다.
본인이 그 함정에서 올라오려면, 기간이 걸립니다.
안 올라오면, 그 함정에서 살아야 됩니다.

◆ <섭리사의 법>은 하나님이 ‘사랑 법’입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됐으니,
<사랑>이 절대 ‘삼위’께 향해야 됩니다.

◆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6000년 만에 <복직의 시대>가 왔습니다.

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 <시대 사랑의 법>을 주셨고,
<그 사랑의 법을 지킨 자들>은
휴거되어 ‘하나님의 창조 목적’을 이뤘습니다!
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보낸 자와의 일체 된 사랑>으로
<휴거>를 이루게 됩니다.

◆ <사랑이 병든 자들>은

세상도 사랑하고, 이성도 사랑하고, 동성도 사랑합니다.

이들은 치료해서 고쳐야 ‘휴거 복직’이 되어
그 <육>도 제대로 ‘휴거의 삶’을 살고,
그 <영>은 비로소 ‘황금성 천국’에 갑니다.

◆ 어떤 한 사람의 <영>을 보니,

아직 영이 덜 형성된 상태였고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.

<영>을 보니 그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.

<영>이 그런 상태라면,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.

<천국에 속한 옷>은 모두 희고,
<하늘 신부>라면 신부 옷을 입고 있으며 빛이 납니다.

- ◆ <천국>에서는 ‘절대 완성된 법’ 을 씁니다.

<의>를 행해야 ‘천국’ 에 가는데,
그 <의>는 ‘절대 메시아를 믿고 일체 되는 것’ 입니다.

그러면 ‘천국에 속한 옷’ 을 입고 ‘휴거’ 됩니다.

- ◆ <이 세상>은 ‘자기를 만드는 과정의 세계’ 입니다.

고로 하나님은 ‘완성된 자’ 나 ‘미완성된 자’ 나
모두 ‘사랑 법’ 으로 대하시며 인도하십니다.

- ◆ 그러나 <천국>은 ‘결론의 세계’ 입니다.

고로, 천국에는 크나 작으나 ‘완성’ 돼야 들어갑니다.
<죄>가 호리라도 있으면, 못 들어갑니다.

<전자 제품>도 크나 작으나 ‘완성’ 돼야 쓸 수 있지요?

하물며 <천국>은 어떻겠습니까?

차원이 낮아도 ‘완성’ 돼야 들어가고,
차원이 높아도 ‘완성’ 돼야 들어갑니다.

<과정의 세계, 이 세상에서 살 때>
자기를 고치고 만들어서 ‘완성’ 시켜야 됩니다.

- ◆ 어떤 사람은 <육신>은 ‘구원의 주관권’ 에서 삽니다.

주가 붙들고 있거나 주를 따르기는 하니,
그 <육>은 ‘구원의 주관권’에 들어와 있습니다.

이것은 ‘육적 구원’입니다.

자신이 온전히 살지 않으면,
그 <영>은 ‘천국의 영’으로 형성되지 않아서
천국에 못 가는 영도 있습니다.

- ◆ <육>은 주를 믿고 따르니 ‘구원의 주관권’에 있어도,
<영>은 육이 온전히 행해야만 ‘천국의 형체’로 형성됩니다.

<육신>이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,
<영>이 절대 ‘천국의 형체’로 형성되지 않습니다.

그러면 결국 <영의 형체>대로 ‘영의 세계’에 갑니다.

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게 되는 ‘결론’입니다.

- ◆ 세상만사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.

자기가 무엇을 만들 때도 <제대로 만든 것>은 물이 안 썩니다.

<제대로 못 만든 것>은 물이 썩니다.

그러면 물을 담아서 가도 실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

<인생>도 그러합니다. <자기 영>도 그러합니다.

<과정의 세계, 이 세상에서 살 때> 온전히 만들어서 완성해야 됩니다.

하나님은 늘 ‘기회’를 주십니다. 고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하나님은 - <개인>마다 ‘그 때에 맞는 법’ 으로 대하고,
- <개인>마다 ‘성장 법’ 으로 대하고,
- 누구든지 ‘사랑 법’ 으로 대하시지만,

누구에게나 적용되는 <절대 공통의 법>이 있습니다.

이 법을 벗어나면, 그때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.

- ◆ 쉽게 비유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.

<흰색>과 <검은색>을 섞어서 칠하면, ‘흰색’ 이 안 나옵니다.

<흰색>과 <검은색>을 섞어서 칠해 놓고,
<흰색>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<흰색>이 되겠습니까?

절대 <흰색>만 칠해야 ‘흰색’ 이 됩니다.
이것은 <절대 공통 법>입니다. ‘예외’ 가 없습니다.

- ◆ <검은색>은 ‘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난 것’ 입니다.
<흰색>은 ‘하나님이 주고 행하게 한 의의 법’ 입니다.

누구든지 <두 가지>를 다 하면,
희고 의롭게 해 달라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.

<하늘 신부>라도 안 됩니다.

<흰색 하나>만 칠하듯, <하나님의 의의 법>을 행해야 됩니다.

이것이 <절대 공통 법>입니다.

- ◆ 하나님을 안 믿어도, 성경을 몰라도,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도,
<법>을 범하면 ‘해’ 가 됩니다.

- ◆ <길>을 두고 돌아가면 멀고, 질러가면 가깝습니다.
이것은 ‘길의 법’입니다.

이 <길의 법>은 하나님을 믿으나, 안 믿으나
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.

하나님을 믿는다고 천 리 길을 돌아가면, 빨리 가지겠습니까?
<길의 법>에 따라서 절대 빨리 못 갑니다.
다만 믿음으로 합리화시킬 뿐입니다.

- ◆ <성경에 없는 말씀>이라도 ‘법’은 지켜야 됩니다.
<법>을 지켜야 ‘해’를 당하지 않고 ‘존재’ 합니다.

- ◆ 지구 세상에는 75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.
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.

이들까지 살려야 되니, 하나님은 지구 속에 <법>을 주셨습니다.
이것이 ‘하나님의 절대 진리’입니다.

<성경 말씀>이 아니어도 <진리>가 ‘세상을 운영’ 합니다.
그 <진리>는 ‘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진리’입니다.

고로 <하나님의 진리>는 세상에 꼭 차 있습니다.
하나님은 ‘그 진리’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.

곧 <전체에게 해당되는 법>입니다.

- ◆ <성경>에 ‘교통법’은 안 나와 있습니다.
자동차가 없을 때 성경을 썼기 때문입니다.

<성경>에 ‘전기에 관한 법’도 안 나와 있습니다.
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성경을 썼기 때문입니다.

고로 <성경>에 없어도 각자 이 시대를 보면서 학문도 배웠으니,
<이 시대 새로운 법>을 지켜야 됩니다.

- ◆ <새 시대 새로운 법>은 ‘옛날’에는 없었습니다.
구약 때도, 신약 때도 안 나왔습니다.
<새 시대의 법>은 ‘새 시대’에 선포하고 행하게 하십니다.

<전환>

- ◎ 이제 <두 가지>를 핵심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.

첫째, 오늘 말씀한 대로 <하나님의 법>에 대해 정리해 주고

둘째, <하나님의 법>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
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고 마치겠습니다.

- ◆ <법>을 꼭 알고 행해야 됩니다.

그러지 않으면 다칩니다. 고생합니다.
손해를 봅니다. 억울하게 당합니다.

- ◆ <법>은 ‘해를 안 받게, 잘되게, 보호하게 만든 성벽’입니다.

<법>을 넘어가면 ‘절벽’입니다.
<법>을 벗어나서는 못 삽니다.

- ◆ 고로 하나님은 <법>을 주어 서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.

<바다>는 따로 ‘바다’를 이루며 존재하게 하였고,
<땅>은 바다와 쪼개져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.

이것이 ‘자연의 법’입니다.

<바다>와 <땅>이 섞여 있으면 반죽이 돼 버리고,
<바다>도, <땅>도 못 씹니다.

- ◆ 이와 같이 인생들에게도 <법>을 주어 서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.
국가의 법, 종교의 법, 각 개인에 따른 법, 그 때에 맞는 법입니다.

- ◆ 오늘 말씀한 대로

- ▶ 첫 번째,

<옛 시대 법>과 <새 시대 법>을 쪼개서 보고 행하기 바랍니다.

<새 시대>에는 ‘새 법’이 적용됩니다.

- ▶ 두 번째,

옛 법 중에서도 <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법>이 있으니,
그 법은 꼭 지켜야 됩니다.

- ▶ 세 번째,

새 시대 법 중에서도 <전체에게 해당되는 법>이 있습니다.

- ▶ 네 번째,

새 시대 법 안에서도 <개인에 따라 대하는 법>이 있습니다.

각자의 처지, 상태, 상황과 성장한 것에 따라 대하는 법입니다.

▶ 다섯 번째,

<신앙이 병든 자들을 대하는 특별법>이 있습니다.

곧 고치는 법, 치료하는 법입니다.

▶ 여섯 번째, <지도자의 법>이 있습니다.

▶ 일곱 번째, <주의 법>이 있습니다.

▶ 여덟 번째, <이제 온 신입생들을 대하는 법>이 있습니다.

가령 <이성의 법>을 적용할 때

섭리사에 오기 전에 모르고 범한 것이냐,

섭리사에 와서 배우고 알고 범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▶ 아홉 번째, <이제 성장하고 있는 자들을 대하는 법>이 있습니다.

과일도 크는 대로 소독하고 봉지로 싸 줍니다.

<법>은 반드시 ‘얼마나 성장했느냐’에 따라

적용하여 대하는 것입니다.

<성장 중인 자>에게 ‘완성 법, 절대 법’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.

그러면 죽어 버립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.

◆ <하나님의 법>으로 생명들을 살려야지,

<법>으로 묶거나 죽이면 안 됩니다.

- ◆ <축구 경기>에서도 ‘법’ 이 없으면 경기가 안 됩니다.

고로 <전체 법>을 주고, <포지션에 따른 법>을 따로 주고,
<상황에 따른 법>을 주어 경기를 진행합니다.

<골키퍼에게 적용되는 법>은 다릅니다.

골키퍼에게는 ‘볼을 손으로 잡는 법’ 을 주고,
나머지는 단 한 명에게도 그 법을 안 줍니다.

단, 골키퍼도 볼을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 걸립니다.

그리고 <축구 경기>는 골대에 볼을 넣으면 골인이지만,
예외일 때도 있습니다.

곧 공격 팀 선수가 상대편 진영에서 공보다 앞쪽에 있을 때,
자기와 골라인 중간에 상대 팀 선수가 2명 이상 없으면
오프사이드(off-side)가 되어 골이 무효가 됩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하나님의 법>도 그러함을 알기 바랍니다.

개인의 처지, 상황, 상태와 성장한 것에 따라서
<적용되는 법>이 다릅니다.

- ◆ 생명을 살리려고, ‘법’ 을 준 것입니다.

고로 <법>으로 생명을 죽이지 말고 살려야 됩니다.
<법>을 잘 배우고 써야 됩니다.

- ◆ <하나님의 법>은 ‘하나님과 구원자’ 가 판단하고 씁니다.

고로 <자신들>이 ‘재판장, 검사’ 가 되어
생명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 안 됩니다!

〈말씀〉만 가르쳐 깨닫게 하고, 스스로 행하게 해 주면 됩니다.

- ◆ 비유를 들어 말해 줄게요.

과일나무에 〈물〉과 〈퇴비〉만 주면 됩니다.

그리고 ‘가을까지 가꾸기’ 만 하면 됩니다.

“과일이 잘 익었다. 혹은, 새가 쪼아 먹었다.” 하며 판단하지 말고,
가을까지 잘 가꾸고 관리만 해 주면 됩니다.

과일이 잘 익었는지, 과일이 잘 컸는지,
이 판단은 〈하나님〉이 하십니다.

그때까지 ‘자기 만들기, 생명 관리하기’ 입니다.

- ◆ 〈절대 법〉은 ‘**완성된 자**’에게 해당됩니다.
고로 ‘**절대 자기 만들기, 생명 관리하기**’ 입니다.

〈성장 중에 있는 자〉에게 ‘절대 법’을 적용하면, 안 맞습니다.
죽어 버립니다.

〈아이가 크는 대로 대개 주는 법〉입니다.

이와 같이 **〈개인이 성장되는 대로 완전하게 도전하는 법〉**입니다.
모두 ‘**자기 만들기, 생명 관리하기**’ 입니다.

- ◆ 조각을 다 만들어서 다듬는 중인데,
이때 ‘강한 정’을 갖다 대면 오히려 돌이 거칠어집니다.

사람을 만들 때도 그러합니다.

때에 맞게 ‘그에 해당되는 법’을 적용하며 대해야 됩니다.

저마다 ‘만들어지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법’ 입니다.

- ◆ 누구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,
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맡기기> 바랍니다.

죄인도 의인도 판단하지 말고,
오직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’ 께 맡기기 입니다.

누구도 ‘죄인을 다루고 판단할 권한’ 이 없습니다.

<죄인>이라도 ‘회개’ 하고 ‘의’ 를 행하면,
하나님과 주만이 그 <의>를 아니 <죄>를 덮어 주고 용서합니다.

고로 죄인도, 의인도 ‘주’ 께 맡기기 바랍니다.
<자기 죄>를 해결하려면, 조용히 ‘주’ 께만 고하기 바랍니다.

<죄의 법>을 가지고, 생명을 죽이면 안 됩니다.
<회개>하면, ‘죄 없는 의인’ 이 됩니다.

- ◆ 주가 말씀합니다.

“<주>도 ‘너의 죄’ 를 두고 힐문하지 않으니,
<너희>도 ‘형제들의 죄’ 를 두고 힐문하지 말아라.

또한 <너 자신>도 ‘너의 죄’ 를 두고 스스로 힐문하지 말아라.
다만 조용히 ‘주’ 께 고해라. 회개하면 ‘죄 없는 의인’ 이다.

<과거에 사랑 죄를 짓고 용서받은 자들>은 이제는 ‘죄’ 가 없다.

그러나 <지금도 계속 사랑 죄를 짓고 있는 자들>은
조용히 ‘주’ 께 고해라. 지금 기회를 더 주고 있다.

<아직 덜 익은 과일>을 따서 “너는 왜 안 익었냐?” 하지 않는다.

더 익도록 ‘기회’를 준다. 이것이 <하나님의 법>이다.”

- ◆ <구약 중 법>이 제일 엄하고,
그다음으로 <신약 자녀 법>이 엄합니다.

<성약 신부 법>은 ‘사랑 법’입니다.

<천국의 법>도 ‘딱 하나’입니다. 곧 ‘사랑 법’입니다.

고로 하나님은 끝까지 ‘사랑’으로 다스리십니다.

다만, 자기가 그 사랑을 받고도 다른 길로 가면

자기 스스로 ‘함정에 빠지는 법’에 걸리는 것입니다.

절대자 하나님께서 ‘온 세상’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.

- ◆ 그런데 사람들은 <하나님>은 아직 심판을 안 하셨는데,
<자기>는 심판을 하며 정죄합니다.

이는 <자기>는 ‘하나님’ 앞에 와 있고,

<그 사람>은 ‘하나님 앞’에 안 와 있기 때문입니다.

하나님은 아직 심판하지 않고, ‘기회’를 주고 계십니다.

이것을 알고 대하기 바랍니다.

- ◆ 하나님은 계속 ‘기회’를 주십니다.

- 그러나 **늦게 하면**, 자꾸 상황이 돌아가서 못 돌아옵니다.

- 또 **늦게 하면**, ‘세상에서 받는 것’이 적고
‘세상에서 누릴 시간’이 없습니다.

- ◆ 힘들지만 자기를 빨리 만들고 완성할수록

<이 세상>에서 ‘육’으로 많이 받고, 긴 시간 동안 누리게 됩니다.

고로 자신도, 생명들도 정죄하거나 힐문하지 말고,

어서 <하나님과 주의 사랑의 말씀>을 듣고 자기 만들기!

생명을 <주의 말씀>으로 가르치며 관리하기! - 바랍니다.

◆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.

“지나치게 <의인> 만들지 말아라.

지나치게 <의인> 만들려다가 생명 죽인다.

다만 <말씀>을 주고, 스스로 깨닫게 하여라.

<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>인데

잘 못 한다고, 문제 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.

<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>가 완벽하게 잘하겠느냐.

<생명에 대해 지나치게 보고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>이 있으니,
이제 그만해라.

그런 것까지 다 알고 처리하니, 오히려 ‘사고’ 난다.

잘못하면, <보고>가 ‘감시’가 된다.

형제들을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고 대하지 말아라.

다만, 계속 <말씀>을 해 주어라.

그들이 듣고, 스스로 행하게 해 주어라.

후에 <판단>은 ‘하나님’이 하신다.

<그때마다 합당한 지혜>가 참으로 중하니라.”

◎ 말씀 마쳤습니다.